기림사 "學林으로 聖林 이룰 것"

〈학림〉 〈성림〉

성림금강 한문불전 승가대학원 개원법회 봉행

전통교수법 한문불전연구
사자상승 계승·법고창신 기대
발전 기원금 총 7100만원 전달
"교화중생 위한 인재 양성 목적"


기림사는 3월 12일 대적광전에서 성림 승가대학원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경주 기림사(주지 덕민)가 성림금강 한문불전 승가대학원(이하 성림 승가대학원)의 첫 시작을 알렸다. 앞으로 기림사는 성림 승가대학원을 통해 한국불교 전통 강맥을 전수하고 대강백 덕민 스님의 지도 속에 깊이 있는 한문불전 연구에 앞장선다는 다짐이다.

기림사는 3월 12일 대적광전에서 성림 승가대학원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타종으로 시작된 개원법회는 경과보고, 불국사 주지 종우 스님의 헌향, 이영숙 불국사 신도회장의 헌화, 헌다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자리서 기림사는 성림 승가대학원 개원 목적이 교화중생 불사에 일익을 담당할 인재 양성임을 천명했다. 또한 성림 승가대학원장 덕민 스님은 성림 승가대학원의 방향을 설명하고 법고창신(法古創新)을 대중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부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에 답을 제시할 수 있는 큰 동량으로 성장할 것을 독려했다.

덕민 스님은 "학인으로 평생을 살았지만 선의 세계도 이해하고 학인들의 세상도 이해가 된다. 우리 문도들도 영원한 학인으로 살아가며 비로자나불의 대광명을 온 우주에 비추고 화엄보살의 실현으로 지구촌에 연꽃 향기 드날려 맑고 향기로운 세상으로 이끌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성림 승가대학원의 출발을 축하하는 축사와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의 덕담 및 법어, 그리고 발전을 기원하는 기금 전달식도 진행됐다.

성타 스님은 "덕민 스님은 누구나 잘 아시다시피 학문과 덕망을 두루 갖추셨다. 스님께서 부임한 이래 기림사는 매우 활발하고 중흥의 기운이 감돌았다. 그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오늘 학림 개원이라 생각한다"며 "대승 불교 사상 핵심은 원력과 원력에 따른 실천이다. 오늘 여기 입학하신 스님들께서는 중생을 위한 대원력을 세우고 그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축하 발전 기금은 불국사 주지 종우 스님 2,000만원, 불국사 관장 종상 스님 1,500만원,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 스님 3,000만원, 이영숙 불국사 신도회장 500만원, 백수활 (주)현대기전 대표가 100만원을 전달했다.

마지막으로 이날 배움의 장을 열어 준 제11교구 본사 스님들과 교수 스님들께 학인 스님들은 사은의 예를 담아 꽃을 올렸으며 승가대학원장 덕민 스님은 격려의 뜻으로 고려대장경 판본 금강경을 수여했다.

성림 승가대학원은 성림당 월산 조실 스님의 유지를 잇겠다는 원력과 인재육성을 위해 문을 열었다. 2015년 6월 기림사에서 교육도량선포식을 열고 약 20개월 동안 준비 과정을 거쳐 조계종 교육원의 승가대학원 정식인가를 취득했다. 2017년 제1기로 7명의 비구스님이 입학했으며 앞으로 스님들은 2년의 전문과정과 3년의 연구과정을 이수한다.

전문과정은 대학원장 덕민 스님의 전통 교수법에 따라 금강경 · 야보송 · 종경록 등 한문불전 강의와 교수사 스님의 사서강의, 사산비명강의 등 내 외전 강의, 그리고 국내 석학의 초빙 특강을 통해 한문원전의 내 외전을 다룰 예정이다. 3년의 연구과정에서는 화엄경, 선문염송 등을 연찬한다.

한편 개원법회에는 원장 덕민 스님,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 교육원 교육부장 진각 스님, 불국사 관장 종상 스님, 불국사 주지 종우 스님, 학감 운암 스님, 쌍계사 강주 대각 스님, 통도사 총무 도문 스님, 해인사 율원장 서봉 스님, 안국사 주지 석산 스님 등 사부대중 400여명이 동참했다.

하성미 기자

범어사, 국민 대통합 특별 기도법회 회향

3월 11~13일까지 3일간 기도정진 마쳐



국가 안정을 위한 기도로 화합을 발원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경선)가 3월 11~13일 대웅전에서 '국가안녕, 국민통합, 국론통일을 위한 3일 특별기도'를 회향했다.〈사진〉 특별기도는 박근혜 前 대통령이 탄핵 선고를 받은 후 정치 이념과 분쟁을 넘어 화평을 기원하고 나라의 안정을 발원하는 시간으로 열렸다.

기도에는 주지 경선 스님과 총무국장 원타 스님을 비롯해 국장 스님들과 사부대중 100여명이 동참했다.

회향을 맞아 주지 경선 스님은 "판시는 됐지만 의견은 각자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모두가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마음이다. 극한으로 치우쳐 서로를 힘들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불교에서는 팔만대장경을 제작하고 기도하는 한편, 고려대장경 등을 방편 삼아 국난이 있을 때마다 마음을 모았다. 이번 기도도 함께 마음을 담아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찾는 계기가 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하성미 기자

부산 혜원정사, 어린이 유발상좌 인연맺기

수계식가족신행 어린이 불자 양성 주춧돌



열반절을 맞아 어린이들이 부처님 품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인연을 맺어주는 시간이 열렸다.

부산 혜원정사(주지 원허)는 3월 12일 대웅전에서 '어린이 유발상좌 인연맺기 수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혜원정사는 매년 열반재일을 맞아 영유아 어린이를 위한 수계법회를 개최하고 있다.

원허 스님은 마정수기 의식으로 참여한 아이들을 격려했다. 마정수기는 계를 수지하는 법석으로 '부처님께서 미래에 부처가 될 사람의 이마를 어루만졌다'는 〈본생담〉의 경전내용에 근거한 의식이다.

올해에는 5명의 어린이가 수계를 받았으며 가족 등 30여명이 동참했다.

원허 스님은 "수계 법회는 어린이들에게 인생의 멘토를 만들어 주기 위해 시작했다. 아이들이 불제자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니 잘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성미 기자

절언니 절오빠, 동생들 포교 책임진다!

진흥사, 3월 11일 반야청소년법회 창립


부산 진흥사 반야청소년법회 및 바라밀어린이법회 학생들이 밝게 웃고 있다.

부산 진흥사(주지 정법)의 절 언니 절오빠들이 청소년 포교를 위해 직접 나선다.

진흥사는 3월 11일 대광명전에서 '반야청소년법회 창립식'과 '바라밀어린이법회 입학법회'를 봉행했다.

창립법회 및 입학식은 어린이들이 직접 육법공양에 동참해 부처님께 향, 꽃, 미 등을 올렸으며 회장 임명장 수여 및 신입회원 환영, 축하 케익 절단식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법문을 맡은 진흥사 장주 스님은 장주 스님은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많은 어린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연이라 생각한다. 좋은 인연을 만나면 인생의 갈림길에서 좋은 선택을 하고 완전한 전환점을 얻기도 한다"며 "또한 사찰에서 만나는 도반과의 우정은 정말 소중하다. 앞으로 더욱 자주 사찰을 찾고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야청소년법회 창립에는 진흥사 청년모임 '청춘 그대 마음의 붓다'(이하 청년회)의 노력이 컸다. 올해 어린이 법회를 졸업한 학생이 복지관 수업을 듣기 위해 더 이상 사찰에 나오지 않겠다는 말에 급히 청소년법회를 창립해야겠다며 의지를 모은 것이 시작점이 됐다.

배아영 청년회장은 "올해 졸업생이 1명이었는데 그 학생이 복지관 수업을 수강 신청했다는 말과 함께 더 이상 사찰에 나오지 못할 것 같다고 했다. 1명도 부처님과의 인연에서 멀어지면 안 된단 걱정이 앞섰다"며 "내년에는 15명의 어린이들이 졸업을 한다. 그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부처님과 인연을 이어가도록 돕고, 청년회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길 바란다. 그러면 젊은 불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청년회 회원들은 매주 조를 나눠 청소년 및 어린이 법회에 동참하고 멘토 역할을 담당 할 뿐 아니라 각종 행사에 조력한다는 의지다.

배아영 회장은 "저희 청년들이 대부분 30대 직장인들이다. 매주 나와 청소년과 어린이 법회를 돕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는데 흔쾌히 도움을 주기로 했다"며 "앞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또한 각종 문화 행사에 참여해 즐거움과 쉼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대원불교조계종, 금강계단·보살계 수계법회



(사)대원불교조계종(종정 청봉)은 3월 11일 총본산 불광사(경남 양산시 주진동)에서 증명법사 종정 정산당 청봉 스님을 비롯한 갈마아사리 월오 스님, 교수아사리 원명 스님 등이 증명한 가운데 제5차 금강계단 및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법회는 타종을 시작으로 삼귀의, 반야심경에 이어 수계의궤에 따라 거향찬, 청성, 청사, 개도참회, 장궤, 연비의 식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자리서 대종사 8명, 종사 4명, 대덕 4명, 보살계 35명이 수지했다.

이날 종정 청봉 스님은 "오늘날 금강계단을 수여한 스님께서는 더욱더 중생제도로서 정신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우리의 이상인 정토구현의 대승보살을 실천하기 위한 많은 포교를 펼쳐 종단 발전에 노력해주길 바란다"면서, 보살계를 받은 불자들에게는 '계(戒)는 하늘을 오르는 사다리와 같고 바다를 건너는 배와 같으며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다'는 경전구를 강조했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단기속성 3개월과정 (51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 교육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 개강일시 : **2017년 4월 3일 (월요일) 오후 3시** (목탁 지참)
- 교육시간 :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3시~5시
- 출 강 반 : 서울 본 대학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 통 신 반 : 지방 거주자를 위해 통신교육을 실시함 (교재, 교육자료, 녹음CD 우송)

2. 교육내용

① 송 주 편 (도량석, 조석종성 등)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③ 헌 공 편 (삼보통청, 중단퇴공, 관음, 지장, 신중청, 각종 불공의식 등)
④ 재의식편 (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등)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방생의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 필요에 따라 일부 범음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 02)733-1959
720-1836

계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제 96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7년 3월 30일 오후 5시
◆ 강의일시 :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